

# 『管子』 4編의 心의 의미에 대한 研究

慶熙大學校 一般大學院 基礎韓醫科學科<sup>1</sup>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sup>2</sup> ·

韓醫學古典研究所<sup>3</sup>

朴賢愛<sup>1</sup> · 丁彰炫<sup>2,3</sup> · 張祐彰<sup>2,3</sup> · 白裕相<sup>2,3\*</sup>

## A Study on The Meaning of Mind(心) in The Four chapters of 『Gwanja(管子)』

<sup>1</sup>Dept. of Oriental Medicine, General Graduate college, Kyunghee University

<sup>2</sup>Dept. of Oriental Medicine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up>3</sup>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Park Hyun-ae<sup>1</sup> · Jeong Chang-hyun<sup>2,3</sup> · Jang Woo-chang<sup>2,3</sup> · Baik You-sang<sup>2,3\*</sup>

The four chapters of 『Gwanja(管子)』 explains the concepts of Do(道), Deok(德), Junggi(精氣) philosophically. Because it contains thoughts about control of Mind(心), it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useful references of ancient chinese philosophy.

In this respect, we can think about the connections between the four chapters of 『Gwanja(管子)』 and Oriental medicine in philosophical perspectives.

In the investigating about Oriental medical philosophy in this study, the meaning of mind(心) is classified from various angles, for example, political, self-improvemental, and physiological. Especially the physiological meaning of mind(心) may receive attention and meaningful consideration of Oriental medicine.

**Key words:** Guanzi four chapters, mind, Daoism

## I. 序 論

『管子』는 管仲의 경제사상 및 정치사상을 바탕으로 군주가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은 중국 고대의 저작이다<sup>1)</sup>. 『管子』는 내용상으로 주나라 말

에서부터 춘추전국시대 초기 혹은 중기까지의 사상이 기록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2)</sup> 『管子』의 76편

\* 교신저자 : 白裕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전화 : 02-961-0326, e-mail : baikys@khu.ac.kr  
접수일(2011년 10월 26일), 수정일(2011년 11월 3일),  
게재확정일(2011년 11월 22일)

1)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관자. 서울. 소나무. 2006.  
p.16 : 길으로 보면 그 내용이 논리적 체계가 부족하고  
잡다한 것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관자는 국가경영이라는  
큰 목적을 위해 정치, 경제, 행정, 법률, 철학, 군사, 자연과학  
등 제반분야에서 요구되는 지식을 집성해 놓은 국가 경영의  
백과전서라고 할 수 있다.

2) 김충열은 '김충열 교수의 중국철학사 1 : 중국철학의 원류'  
(서울. 예문서원. 1994. pp.96-99, pp.240-285, pp.292  
-296)에서, 『管子』에는 주나라 말기에서 춘추 시대 초기로  
이어지는 당시 시대의 사상적 내용이 관자에 잘 나타나  
있으며, 다른 서적들보다 『管子』에 더 높은 철학사적 위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管子』를 法家나 雜家로  
보는 기존의 견해에 반대하며, 체자백가로 분화되기 이전의  
내용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실제로 『管子』의 내용을 살펴  
보면 道家의 無爲와 虛의 道를 중시하면서도,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德을 중시하고 忠恕 사상의 면에서는 儒家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실천적 儒家'의 면모를 보이며, 상업을 장려  
하면서도 강력한 처벌은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한비자 등의 法家와는  
실제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이 견해에  
동의하면서 씌어졌다.

중에서 「心術上」, 「心術下」, 「白心」, 「內業」 등의 편들을 묶어서 『管子』 4編이라고 통칭하는데, 개인의 마음을 수양하는 내용 및 道, 德 그리고 精氣에 대한 철학적, 개념적 기술이 기록되어있다<sup>3)</sup>. 따라서 지금까지 춘추전국시대, 그 중에서도 춘추시대 초기나 중기의 동양철학을 연구하는 자료로 氣 우주론의 측면 등에서 연구되어 왔으며,<sup>4)</sup> 사상적으로는 黃老학과 연결되는 것으로 저술로 평가되어 왔다.

黃老학과의 사상적 흐름은 근본적으로 『老子』와 연결되어 있으며<sup>5)</sup> 『黃帝四經』에서 『管子』 4編과 『呂氏春秋』를 거쳐 『黃帝內經』을 비롯하여 黃帝를 가탁한 수많은 다른 저서들로 뻗어나간다.<sup>6)7)</sup>

『黃帝四經』, 『呂氏春秋』, 管子4編은 황로학과의 저술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한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치가 매우 크다.<sup>8)</sup> 黃帝를 가탁한 수많은 저서

중에는 한의학의 最古 경전인 『黃帝內經』이 포함되기 때문이며<sup>9)10)</sup>, 한의학의 철학적 기초를 연구하기 위하여 한의학계 내부에서도 『黃帝四經』, 『呂氏春秋』, 『管子』 4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sup>11)</sup>. 한의학계의 管子4編에 대한 연구로는 지금까지 박석준, 최승훈 ‘『管子』 4編 등에 나타난 정기설 고찰’이 대표적이다.<sup>12)</sup>

『管子』 4編과 『黃帝內經』은 황로학과의 저술로 여겨지나, 『管子』 4編과 의학이 교섭하는 구체적 지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管子』 4編의 心과 한의학의 心의 상관성을 조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管子』 4編의 心의 의미는 실제로 정치적 의미인 경우도 있고, 수양적인 의미일 경우도 있어서 이를 분류하고 개념화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管子』 4編에서 心이 사용된 원문을 찾고, 내용을 분석하여 心을 정치적, 수양적, 의학적인 관점으로 분류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 3) 郭沫若은 그의 저작인 『靑銅時代』와 『十批判書』에서 『管子』 중 「心術上」, 「心術下」, 「白心」, 「內業」 편을 묶어서 『管子』 4編이라고 통칭하였으며, 이들의 저자가 송견과 윤문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馮友瀾은 『中國哲學史新編』에서 저자가 송견과 윤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管子』 4編의 저자는 확실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며 설이 분분하다. 그러나 『管子』 4編을 묶어서 하나로 보는 견해는 학계에 지속되고 있다. 김희정은 ‘『管子』 4編의 구원론으로서 치신 사상에 대한 연구’에서 『管子』 4編이 사상적 흐름의 연속성에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였다.(김희정. 관자 4편의 구원론으로서 치신 사상. 도교문화연구. 2003. 18. pp.214-215)
- 4) 박동인은 ‘管子4編과 갈관자의 기화우주론 연구’(철학연구. 2009. 86. pp.33-59)에서 道와 우주생성론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를 밝히고 있다. 『管子』와 『鶡冠子』는 道氣 一元論으로 보았으며, 이후 『呂氏春秋』와 『淮南子』에서는 道氣 二元論이 되었다고 하였고, 氣가 어떻게 우주만물을 생성할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 없었다는 것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 5) 김수중은 ‘노자와 황로사상. 동양철학연구. 2006. 47. pp. 306-307’에서 노자와 황로학의 관계를 『黃老帛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자세히 고찰하고 황로학의 실체를 규명하였다.
- 6) 김성지는 ‘동중서의 양 중심사상으로의 전환에 대한 고찰’(경희대학교 대학원. 2010. p.27-30)에서 黃老學의 특징을 크게 3가지로 본다. 첫째, 道家 중심의 혼합주의이며, 둘째, 君主無爲의 통치술을 기본으로 하고, 셋째, 陰 중심의 사상으로 보았다.
- 7) 야마다 게이치. 전상운 외 역. 중국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2. pp.92-94, pp.107-112, pp.116-118.
- 8) 유장림 지음. 조남호 외 역. 강설 황제내경. 서울. 청흥. 2009. pp.24-29, pp.228-229, pp.240-244.

- 9) 김광중, 지재동. 황제내경의 정기론 형성에 관한 황제사경의 영향. 동서의학. 2009. 34(3). pp.67-84.
- 10) 김성지. 동중서의 양 중심사상으로의 전환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0. p.24. : 전국시대 중기 이후에 黃帝라는 이름을 가탁하여 많은 학파가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학파가 黃老學派이다. 黃老學에는 陰陽五行을 基底로 한 天文, 曆法, 醫學 등 당시에 수많은 黃帝라는 이름이 붙은 책들이 여기 포함된다. 예를 들면 『漢書』 「藝文志」에서 언급된 『黃帝內經』 18권, 『黃帝外經』 37권, 『黃帝陰陽』 25권 등등 黃帝書로 기재된 12류의 26종의 책 등이다. 이러한 黃帝라는 이름의 책 내용은 黃帝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黃帝內經』을 보면 黃帝學과 老子學이 합한 내용이 아니라 다만 老子의 철학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설을 혼합한 醫學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黃老學은 黃帝라는 이름을 가탁하고 老子의 思想을 기초로 하여 儒家, 墨家, 名家, 陰陽五行說을 흡수했고 法家의 說을 받아들였다.
- 11) 모든 학문의 발전은 철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보면,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의학의 저변에 깔린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넓은 이해가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현대 한의학의 발전이 가능해질 것은 타당한 견해이다.
- 12) 박석준, 최승훈은 ‘관자 4편 등에 나타난 정기설 고찰’(동의병리학회지. 1993. 8. pp.177-223)의 연구에서 황로학과의 황제를 가탁하여 저술한 많은 서적의 사상적 공통성을 가정하였으며, 『黃帝四經』, 『呂氏春秋』와 함께 『管子』 4編을 주목하고 있다. 이 연구 이후에 한의학계에서 『管子』 4編을 연구하는 시도는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앞으로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을 때, 『管子』 4編의 내용은 당시 의학의 철학적 배경을 재구성하고 그 핵심 내용에 접근하는 중요한 주제이며, 향후 중국 고대의 역사적 배경과 철학적 맥락 속에서 『黃帝內經』 등 의학적 성과를 의철학적 또는 치료의학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 II. 本 論

『管子』 子4編에는 『黃帝內經』에서도 볼 수 있는 임금과 신하의 비유에서부터, 고요함[靜]과 비움[虛] 중요시하는 수양의 내용, 그리고 喜樂愛怒를 경계하고, 이를 精氣와 연결시키는 생리적인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sup>13)14)</sup> 정치적인 의미로서의 군주의 중요성은 곧 心의 중요성과 같은 의미로서 연결이 된다. 한편, 心을 내면에서 안정시켜 다스려야 한다는 점에서 수양적 측면이 논의된다. 여기에 지나친 생각과 정서가 실제로 心을 해친다는 점에서 생리적 측면을 더하여 이러한 세 가지 각도에서 논의하였다.

### 1. 정치적인 의미의 心

『管子』에서는 心을 君主에 비유하며, 心-人과 君-國을 유비적 관계로 설정하여 보는 시각을 유지한다. 우선 군주의 권위에 대하여 “한 사람의 治亂은 心에 달려있고, 한 나라의 존망은 그 군주에 달려있다 (一人之治亂在其心, 一國之存亡在其主).”<sup>15)</sup>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心을 중심으로 정치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를 통하여 국가 통치가 가능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管子』 「心術上」 편에서는 “心之在體, 君之位也, 九竅之有職, 官之分也.”라고 하여 몸에서 마음은 군주의 지위와 같고, 아홉 구멍은 관직과 같다고 상호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心의 중요성만을

강조한 것을 넘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음을 말해준다.<sup>16)</sup>

그러므로 여기서 心과 九竅의 관계가 설정되면서, 心術은 관직들을 제어하는 것이 되지만(心術者, 無爲而制竅者也)<sup>17)</sup>, 이러한 제어가 곧 유가 또는 법가의 예와 법을 통한 통치의 개념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無爲의 정치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管子』에서 말하고 있는 통치란 道家의 無爲 개념에 가까워서 고요하고 안정됨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

無爲는 道家 정치사상의 핵심이면서 黃老學에서도 역시 정치의 기본이 되는 통치술이다.<sup>18)</sup> 『黃帝內經』에서 바라보고 있는 몸과 마음의 상하승강 및 출입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無爲의 君主와 비슷한 心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행위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요함과 안정됨[靜]으로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管子』에서는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管子』 4編 중에 「白心」 편은 편명에 心이 있지만 원문에는 心이 나오지 않는다. 法을 바로 세워서 道를 확립하여 정치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으며, 道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白心」은 心을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여 포괄적으로 지은 편명으로 보아야 한다.<sup>19)</sup> 즉, 하늘과 만물, 성인과 백성을 상호 유비관계로 두고 있는 것이다.

하늘은 그 행할 바를 행하여 만물이 그 이익을 얻으며, 성인 역시 그 행할 바를 행하여 백성이 그 이익을 얻는다. 이 때문에 만물이 이미 조화를 이루어 그 많음을 뽐낸다. 그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은 자신을 고요히 하여 기다리는 것이다.<sup>20)</sup>

16) 이러한 시스템과 순환의 개념은 『黃帝內經』 시대에 이르러 장부론과 경락론이 완성되는 과정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17) 김필수, 고대학, 장승구, 신창호, 판자. 서울. 소나무. 2006. p.508.

18) 김갑수. 황로학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시대와 철학. 1999. 10(1). pp.241-263.

19) 의학적인 心의 의미에 국한하여 추후에 연구하는데 있어서 『管子』 4편 중에 「白心」 편은 큰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나 이에 대한 더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

20) 김필수, 고대학, 장승구, 신창호, 판자. 서울. 소나무. 2006. p.523-524 : 天行其所行, 而萬物被其利. 聖人亦行其所行, 而百姓被其利. 是故萬物均既誇衆矣. 是故聖人之治也, 靜身以待之. 物至而名自治之.

13) F.W.모트. 김용현 역. 중국의 철학적 기초. 서울. 서광사. 1994. pp.157-164.

14) 周桂鈿. 문재곤 외 역. 강좌 중국철학. 서울. 예문서원. 1992. pp.141-142.

15) 『管子』 「七臣七主」 편에 실려있는 문장으로 心과 君主의 유비관계를 한 문장으로 보여준다. (김필수, 고대학, 장승구, 신창호, 판자. 서울. 소나무. 2006. p.645)

여기서 心은 無爲의 君主와 같아서, 心이 다스려져야 만물이 조화를 이루고 천하가 고르게 다스려진다. 성인 자신이 그 행할 바를 행하여 ‘백성이 이익을 얻고 만물이 조화를 이루어 그 많음을 뽑내는 것’이 바로 군주가 이 세상의 다스리는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君主의 心은 道를 이루기 위하여 바르게 하고 같고 닦아야 할 우선적인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素問·靈蘭秘典論』에서도 “凡此十二官者, 不得相失也. 故主明則下安, 以此養生則壽, 殁世不殆, 以爲天下則大昌. 主不明則十二官危, 使道閉塞而不通, 形乃大傷, 以此養生則殃, 以爲天下者, 其宗大危, 戒之戒之.”라 하여 우선적으로 군주의 明, 不明 여부에 따라서 十二官이 평안하거나 위태로워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서 확장되어 곧 천하의 안녕과 직결된다고 보았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을 바라보는 바탕 위에서, 그 변화의 시작의 대상으로서 心을 바라보는 것이며 다음의 수양론의 心과 연결된다.

## 2. 수양의 의미로서의 心

『管子』 4編에서 心은 바르고[正] 고요하면서[精] 비우는[虛] 노력을 하여 같고 닦아야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管子는 聖인도 결국 이러한 수양론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곧 국가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보았다.

마음을 편안히 하면 나라가 편안하다. 마음을 다스리면 이에 나라도 다스린다. 다스림도 마음으로 말미암고 편안함도 마음으로 말미암는다. 道는 지극히 거대하고 지극히 텅 비고 고요하여 聖인이 아니라면 어지러워진다.<sup>21)</sup>

무릇 道는 고정된 거처가 없이 선한 마음에 머문다. 心이 고요하고 氣가 이치를 따르면 도가 이에 머문다.<sup>22)</sup>

道를 얻어서 쓰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을 갖고 心을 안정(靜)시켜야 한다. 靜은 心을 다스리는데 있어 자주 언급된다.

21)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관자. 서울. 소나무. 2006. p.518 : 心安是國安也, 心治是國治也. 治也者心也, 安也者心也. 道其本至也. 至不至無, 非所人而亂.

22)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관자. 서울. 소나무. 2006. p.606 : 凡道無所, 善心安愛. 心靜氣理, 道乃可止.

겉모습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덕이 오지 않고, 마음 속에 정성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다.<sup>23)</sup>

이어 겉모습을 바르게 하고 덕을 수양하면 만물이 다스려진다고 하며 “사물로 오관을 어지럽히지 말고, 오관으로 심을 어지럽히지 말라”<sup>24)</sup>고 하였다.

心이 그 올바른 道에 처하면 九竅가 그 이치를 따르지만, 욕심으로 가득차면 눈이 그 색을 보지 못하고, 귀가 소리를 듣지 못한다.<sup>25)</sup>

이것은 心이 어떻게 九竅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통찰력을 가지고 관찰한 결과인데, 心이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들어오는 정보를 편향되게 취합함으로써 나오는 부정적인 결과이다. 그 욕심은 바로 好惡에 대한 선호에서 나온다. 그래서 「心術上」과 「內業」에서는 好惡에 구속되지 말 것을 주문하는데, 이는 비움[虛]과 질박함[素], 고요함[靜]으로써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sup>26)27)</sup>

또한 사람의 마음이 평정을 잃는 까닭은 喜怒哀憂 때문이니, 怒를 그치는 데는 詩보다 좋은 것이 없고, 근심을 없애는 데는 음악보다 좋은 것이 없고, 즐거움을 조절하는 데는 禮보다 좋은 것이 없고, 예의를 지키는 데는 敬보다 좋은 것이 없고, 敬을 지키는 데는 마음을 고요하게(靜)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sup>28)</sup> 여기에 『管子』에서는 특유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의 위에는 靜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3)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관자. 서울. 소나무. 2006. p.516 : 形不正者, 德不來. 中不精者, 心不治.

24)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관자. 서울. 소나무. 2006. p.516 : 無以物亂官, 毋以官亂心.

25)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관자. 서울. 소나무. 2006. p.506 : 心處其道, 九竅循理. 嗜慾充益, 目不見色, 耳不聞聲.

26)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관자. 서울. 소나무. 2006. p.514-515.

27) 신정근은 ‘전국시대 2단계 心 담론으로서의 관자 심학의 의의’(동양철학연구. 2009. 57. pp.223-245)에서 『管子』 4編의 心의 특징은 心속에 또 心이 있는 이중 구조임을 주장한다. 즉 心은 기호와 욕망에 너무나도 쉽게 영향을 받는 동시에, 道와 일치하여 기호와 욕망의 위력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는 존재이다.

28)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관자. 서울. 소나무. 2006. p.613-614 : 凡人之生也, 必以平正. 所以失之, 必以喜怒哀憂. 是故止怒莫若詩, 去憂莫若樂, 節樂莫若禮, 守禮莫若敬, 守敬莫或靜. 內靜外敬, 能反其性, 性將大定.

「心術下」와 「內業」에는 心을 專一하게 갖고 닦으면, 점을 치지 않아도 길흉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된다는 내용이 있다. 意를 專一하게 하고, 心도 하나로 [一]하면 점을 치지 않고도 먼 곳의 일을 알 수 있다고 하여, 心을 어지럽히지 않고 하나로 모으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다. 계속 생각하면 그 궁극에는 知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sup>29)</sup><sup>30)</sup>. 이는 儒家의 수양론과도 일견 흡사한 면이 있다.<sup>31)</sup>

맹자<sup>32)</sup>는 인간의 본성에는 측은지심으로 대표되는 타고난 도덕성이 있는데, 이는 수양하지 않으면 그 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였다.<sup>33)</sup> 그 수양하는 방법으로 盡心,<sup>34)</sup> 즉 마음을 다함을 제시하는데 이는 위에서 본 ‘一於心’과 유사하다. 思之 하면 精氣가 지극해져서

知를 얻게 된다는 점도 맹자가 思를 중시하는 것과 상통한다.<sup>35)</sup> 그레이엄은 그의 저서에서 「내업」에 대하여 기술하면서 맹자의 호연지기를 같이 언급하였다.<sup>36)</sup> 그러나 호연지기를 신비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한 것은 유가와 『管子』에서 말하는 사회정치적 기본 시각과 차이가 있다. 『管子』에서 말하는 성인으로부터 시작하는 수양론이 비록 고요함과 평정함에서 시작하고 있으나 心을 專一하게 갖고 닦는 수양론에 대한 개인적 노력[思]은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思를 통하여 얻은 知가 꼭 인체의 생명력과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삶에 반드시 이로울 것만은 아니다. 생리적 의미로서의 心의 관점에서 바라 보았을 때, 이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서 지나치면 어그러지게 된다.

### 3. 생리적 의미로서의 心

#### 1) 心과 君의 비유

『管子』 4編을 살펴볼 때 『黃帝內經』과 비슷한 부분으로 눈에 띄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心에서도 언급되었지만 心을 君에 비유하면서 그 생리적 영향력을 해석한 것이다.

몸에서 마음은 군주의 지위와 같고, 아홉 구멍은 관직과 같다.<sup>37)</sup>

29)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관자. 서울. 소나무. 2006. p.517 : 專於意, 一於心, 耳目端, 知遠之證. 能專乎, 能一乎, 能毋卜筮知吉凶乎, 能止乎, 能已乎, 能毋問於人而自得之於己乎. 故曰, 思之, 思之不得, 鬼神教之. 非鬼神之力也, 其精氣之極也.

30) 앤거스 그레이엄은 ‘도의 논쟁자들 : 중국 고대 철학 논쟁’ (서울. 새물결 출판사. 2003. p.182-191)에서 이 부분을 사머니즘의 접신에 따른 체험으로 보면서 “대부분이 운문인 내업은 중국에서는 아마도 가장 오래된 ‘신비주의적’ 문헌으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맹자의 호연지기와 함께 이것의 수행은 유, 도가 갈리기 이전의 초기 단계에 속할지 모른다. 장자에서와 같은 도덕적 관례에 대한 저항은 보이지 않으나, 반대로 명상의 효능은 인, 의, 예와의 자연스런 조화 속에서 사람들을 군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사사로이 수행되며 군주들에게 정치의 비밀로서 추천되는 명상은, 직업적 무당들의 입신 상태에서 직접 유래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어 있는 점도 흥미롭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非鬼神之力也’ 라고 바로 뒤에 명시되어 있으며, 精氣之極이라는 표현으로 비인격화된 표현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내업」 편이 사머니즘의 접신이라는 견해에는 동조할 수 없다. 접신은 ‘인격화된’ 초현실적인 존재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점을 치지 않고도 먼 곳의 일을 안다는 것은 지혜를 가졌다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가 더 많다.

31) 양칭. 관자의 도론체계 연구에 대한 종합적 서술. 동서사상 연구소논문집. 2010. 8(2). pp.211-224.

32) 맹자도 황로학의 시초로 여겨지는 직학당에 초대된 사실이 있다. (김성지. 동중서의 양 중심사상으로의 전환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0. p.26), (김예호. 직학당 노도가의 정치철학 연구 - 관자 4편과 황제사편 도론의 사회적 전개과정 비교 고찰. 중국학보. 2003. 48. pp. 597-622), (김예호. 직학당노도가의 정치철학적 세계관 연구 - 管子4編의 도론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2003. 33. pp.273-304)

33) 정영수. 맹자의 도덕적 자기수양 - 사유능력(思)을 중심으로. 범한철학회. 2008. 48. pp.29-49.

34) 맹자. 진심상.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 則知天矣.

35) 정영수는 ‘맹자의 도덕적 자기수양 - 사유능력(思)을 중심으로’(2008. 범한철학회. 48. pp.29-49)에서 맹자의 수양 방법은 盡心이며 이것은 思로서 얻는 것으로 본다. “인의 예지와 귀함은 도덕능력으로서 외부로부터, 즉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弗思) 살아간다. 맹자는 이처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각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36) 앤거스 그레이엄은 ‘도의 논쟁자들 : 중국 고대 철학 논쟁’ (서울. 새물결 출판사. 2003)에서 관자 「내업」 편과 맹자를 연결시키고 있다. 일부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맹자는 호연지기에 대해서 유사한 발언을 하는데, ‘만물의 이치가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그의 주장과 유사한 것이 몇 줄 뒤에 보인다. ‘기를 집중시켜서 신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만물의 이치가 너에게 갖추어져 존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37)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관자. 서울. 소나무. 2006. p.506 : 心之在體, 君之位也, 九竅之有職, 官之分也.

이는 心을 군주로 비유하였다는 점에서는 『黃帝內經』과 일치하나, 『黃帝內經』에서는 五臟六腑를 관직에 비유하는데 반해 管子4編에서는 장부가 아닌, 감각을 받아들이는 기능으로서의 九竅만을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다.<sup>38)</sup> 물론 여기서 九의 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비유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서, 地方과 같이 시공간적으로 분화된 천하를 의미하기도 하고 유기체 안에서는 제대로 갖추어지고 동작하는 순환의 시스템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철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실제 心과 九竅의 관련성을 『黃帝內經』 안에서 찾아보았을 때, 『黃帝內經靈樞·邪氣藏府病形』에서 陽氣 또는 精氣와 九竅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으며,<sup>39)</sup> 또한 神明이 心의 君主에서 나오므로<sup>40)</sup> 神明的 밝음과 어두움은 九竅의 通, 不通과 바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관자 「君臣」 편에는 四肢를 추가한 비유가 등장한다. “四肢와 六道<sup>41)</sup>가 몸의 體라면 四正과 五官은 나라의 體이다. 사지가 통하지 않고 六道가 도달하지 못하면 失이라 한다. 四正이 바르지 못하고 五官이 제 구실을 못하면 반드시 어지러워진다.”<sup>42)</sup>고 하여, 몸과 그 기관을 국가와 그 직분에 비유하는데서 더 나아가 구성 단위와 구조 속에서 소통을 중시하였으며 이것이 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어지러워진다고 본 것이다. 이는 유기적 생명관에서 병리적 현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素問 靈蘭秘傳論』에서는 유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한 관료제와 몸을 유비관계로 서술하고 있다.<sup>43)44)</sup> 이는 단순한 비교에 그치지 않고, 유비관계로 서술함으로써 두 영역의 심층부의 공통된 토대가 있음을 함축하여 그 의미를 추리하는데 도움을 준다.<sup>45)46)47)</sup> 즉 단순한 문학적 비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열린 구조로서 비유와 추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sup>48)</sup>

## 2) 지나친 思나 情으로 心이 손상됨

思나 지나친 정서로 인하여 心이 상하고 生이 어그러진다는 개념은 『黃帝內經』과 유사하다.<sup>49)</sup> 「內業」 편에 생을 잃게 된다는 언급이 있다.<sup>50)</sup>

38) 『管子』에서 心을 제외한 기타 五臟은 사람의 몸이 만들어지는 순서를 언급하는 「水地」 편에 등장한다. 그러나 「水地」 편에서는 군신 관계의 비유는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각 臟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도 언급되지 않는다.

39) 『黃帝內經靈樞·邪氣藏府病形』에서 “十二經脈, 三百六十五絡, 其血氣皆上於面而走空竅, 其精陽氣上走於目而爲睛, 其別氣走於耳而爲聽, 其宗氣上出於鼻而爲臭, 其濁氣出於胃, 走脣舌而爲味. 其氣之津液, 皆上燻於面, 而皮又厚, 其肉堅, 故天氣甚寒, 不能勝之也.”라고 하였다.

40) 『素問·靈蘭秘傳論』에서 말한 神明을 인간의 예지와 정신능력의 높은 차원으로 해석하였을 때 神明은 九竅의 인지 능력과 관련이 깊다.

41) 六道는 心, 肝, 腎, 肺, 脾, 命을 말한다.

42) 김필수, 고대역, 장승구, 신창호. 관자. 서울. 소나무. 2006. p.446 : 四肢六道, 身之體也. 四正五官, 國之體也. 四肢不通, 六道不達, 曰失, 四正不正, 五官不官, 必亂.

43) 『素問·靈蘭秘傳論』에서 “心者, 君主之官也, 神明出焉. 肺者, 相傳之官, 治節出焉. 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 膽者, 中正之官, 決斷出焉. 膻中者, 臣使之官, 喜樂出焉. 脾胃者, 倉廩之官, 五味出焉. 大腸者, 傳道之官, 變化出焉. 小腸者, 受盛之官, 化物出焉. 腎者, 作強之官, 伎巧出焉. 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라 하였다.

44) 천인석. 유학사상과 한의학. 동서의학논문집. 2010. 21(2). pp.39-48.

45) 백유상은 ‘유비추리를 통해 본 한의학 이론구성의 과정’ (2006.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4). pp.202-211)에서 내경 이론체계의 주된 특징은 유비적 사고임을 거론하며 그 구체적인 예로 『素問 靈蘭秘傳論』을 들고 있다. 비유가 누구에게나 잘 알려지고 단순하다면 새로운 앎의 획득은 없을 것이나, 『素問 靈蘭秘傳論』에서는 ‘관료제의 지식이 의학영역에 적용되기 위해 재배열되어’ 유비뿐만이 아닌 추리를 통한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으며, 관리시스템 모델로 국가 및 인체를 바라본다고 보았다.

46) 정우진. 감응과 한의학. 의철학연구. 2010. 9. pp.19-43.

47) 정우진. 상관적 사유의 비판적 고찰. 범한철학. 2010. 58. pp.1-25.

48) 예를 들어 『素問 靈蘭秘傳論』에서 “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라고 하였을 때, 단순히 肝의 용맹성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우선하여 선도해 나가는 모든 생리적 기능들을 유추할 수 있으며 謀慮라는 것도 단순한 용맹성 이상으로 복잡하고 세밀한 인체의 생명 현상들을 주도면밀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열린 구조의 유비추리는 새로운 식견과 연결되어 철학적 의미를 강하게 가지게 된다.

49) 『素問 舉痛論』에서 “怒則氣上, 喜則氣緩, 悲則氣消, 恐則氣下, 寒則氣收, 炇則氣泄, 驚則氣亂, 勞則氣耗, 思則氣結, 九氣不同.”이라 하여 지나친 思가 氣를 결합하게 만들 수 있음을 말하였다.

50) 심우섭. 관자 정치철학사상의 현대적 조명. 동양철학연구. 1999. 21. pp.237-271.

뜻(意)이 언어보다 앞서고, 뜻이 있는 뒤에 形이 있고, 形이 있는 뒤에 思가 있고, 思 이후에 知가 있다. 무릇 心은 知가 지나치면 生을 잃게 된다.<sup>51)</sup>

생각이 知를 낳고, 게으르고 경솔함이 근심을 낳고, 포악하고 오만함이 원망을 낳고, 우울함이 병을 낳으니, 이런 병이 오래되면 죽는다. 사념을 버리지 않고, 안으로는 괴롭고 밖으로 험박이 있으면 오래지 않아 병이 들 테니, 생기가 장차 몸에서 떠난다.<sup>52)</sup>

위의 生은 국가의 존망이 아닌 인체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여기서 心의 의미도 생리적인 의미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정신과 육체를 이분법으로 구분하여 생각하지 않는 특징을 보여준다. “金心在中不可匿, 外見於形容, 知於顔色(마음속의 성심(金心)은 숨길 수 없어서 겉모습에 드러나며 안색에 나타난다).”<sup>53)</sup> 라는 구절에서도 내부의 心의 정신적 상태가 겉으로 보이는 形容과 顔色으로 드러난다는 사고를 엿볼 수 있다.

정신활동인 思 뿐 아니라 지나친 감정도 心을 해친다는 서술도 보인다.

무릇 心의 모습은 저절로 가득차고 저절로 넘치며, 저절로 생기고 저절로 이룬다. 그 心을 잃는 까닭은 근심, 즐거움, 기쁨, 노여움, 욕심, 이기심 때문이다.<sup>54)</sup>

지나친 정서가 心을 해친다는 것인데, 이것은 『黃帝內經』에서 좀 더 발전되고 구체적인 형태로, 七情에 따른 손상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sup>55)</sup> 『黃帝內經』이

저작될 당시의 黃老學에서는 이미 기철학을 바탕으로 心을 해석하고 이를 의학에 응용하였으므로, 『管子』의 心 개념보다는 좀더 氣의 개념에 접근해 있다고 할 수 있다.

『內業』에서는 이 밖에도, 너무 배부르게 먹거나 굶주리게 하지 말고 그 중간에 처할 것을 권고하며, 이 배부름과 굶주림, 나이의 많음과 젊음을 또 思와 연결시켜서 잘 조절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무릇 음식을 먹는 도는 너무 배불리 먹으면 손상되어 몸에 좋지 않고, 너무 굶주리면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른다. 배불리 먹거나 굶주림의 사이, 이를 혈기가 조화롭고 몸이 건강하여 정기가 의지하는 곳이라 하니, 지혜가 생기는 곳이다. 굶주리거나 배불리 먹어 절도를 잃으면, 죽음에 이른다. 배부르면 즐겁게 움직이고, 굶주리면 생각을 쉬고, 늡으면 생각을 아껴야 한다. 배부른데 즐겁게 움직이지 않으면, 기가 사지에 통하지 않는다. 굶주렸는데 생각을 쉬지 않으면, 배불러도 떨쳐 일어나지 못한다. 늡었는데 생각을 아끼지 않으면, 피곤하여 생기를 다한다.<sup>56)</sup>

『內業』은 『管子』 4編 중에서도 精氣에 대한 언급이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이기도 하다. 이러한 것을 볼 때, 「白心」의 心이 정치적 의미에 제일 가까웠다면, 「內業」의 心은 생리적 의미에 제일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추후 『管子』 4編과 한의학을 연관시켜 연구한다면, 『管子』 4編 중에서 「白心」 편을 제외하고 「水地」 편을 추가하여 연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51)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관자. 서울. 소나무. 2006. p.520 : 意以先言, 意然後形, 形然後思, 思然後知. 凡心之形, 過知失生.

52)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관자. 서울. 소나무. 2006. p.612 : 思索生知, 慢易生憂, 暴傲生怨, 憂鬱生疾, 疾困乃死. 思之而不舍, 內困外薄, 不蚤爲圖, 生將巽舍.

53)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관자. 서울. 소나무. 2006. p.519

54)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관자. 서울. 소나무. 2006. p.605 : 凡心之形, 自充自盈, 自生自成. 其所以失之, 必以憂樂喜怒欲利. 能去憂樂喜怒欲利, 心乃反濟.

55) 『素問學痛論』에서 “怒則氣逆, 甚則嘔血及殮泄, 故氣上矣. 喜則氣和志達, 榮衛通利, 故氣緩矣. 悲則心係急, 肺布葉舉, 而上焦不通, 榮衛不散, 熱氣在中, 故氣消矣. 恐則精却, 却則上焦閉, 閉則氣還, 還則下焦脹, 故氣不行矣. 寒則腠

理閉, 氣不行, 故氣收矣. 是則腠理開, 榮衛通汗大泄, 故氣泄. 驚則心無所倚, 神無所歸, 慮無所定, 故氣亂矣. 勞則喘息汗出, 內外皆越, 故氣耗矣. 思則心有所存, 神有所歸, 正氣留而不行, 故氣結矣.”라고 하여 칠정의 변화를 인체의 기의 변화와 연결시키고, 이러한 기의 변화를 통하여 병리적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56)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관자. 서울. 소나무. 2006. p.614 : 凡食之道, 大充, 傷而形不減, 大攝, 骨枯而血泣. 充攝之間, 此謂和成, 精之所舍, 而知之所生. 飢飽之失度, 乃爲之圖. 飽則疾動, 飢則廣思, 老則長慮. 飽不疾動, 氣不通於四肢. 飢不廣思, 飽而不廢. 老不長慮, 困乃憊竭.

### III. 考察 및 結論

『管子』 4編은 黃老學派의 저술로서 한의학의 고전인 『黃帝內經』과 같은 계보 안에 있는 저작으로 평가 받는다. 그 주요 소재인 心을 중심으로 『管子』 4編에서 어떤 의미로 바라보았는가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心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선, 정치적 의미로서 心은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에 비유된다. 「白心」은 心을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여 지은 편명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수양의 의미로서 心은 바르고(正) 고요하면서(精) 비우는(虛) 노력을 하여 같고 닦아야 한다는 의미로 『管子』 4編 전반에 걸쳐 언급된다. 心을 수양하여야 그것을 확장하여 국가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慾心을 버리고 心을 전일하게 하여 思의 궁극에 이르면 지혜를 얻게 된다. 이것은 맹자의 수양론과 유사하다.

셋째, 생리적 의미로서 心은 지나친 思나 情으로 인하여 그르쳐 生을 손상하게 된다는 의미로 주로 「內業」에서 언급된다. 또한 식생활 조절 및 그와 연계된 思의 조절이 언급되고 있다.

『管子』에서 말하는 心에 대한 의미를 바라보는 출발점이 철학적 시각과 의학적 시각의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철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였을 때, 『管子』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정치적으로 혼란하였던 주나라 말에서부터 춘추전국시대 초기 혹은 중기까지의 저작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혼란기를 지나는 과정에서 인간과 사회 나아가 우주자연에 대한 깊은 사색을 통하여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sup>57)</sup>. 실제 『管子』는 내용상으로 국가경영을 위한 실용적인 정치, 경제, 행정, 법률, 철학, 군사, 자연과학 등 제반분야의 지식들을 집대성한 책이며 이 밑바탕에는 당시의 철학적 접근이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管子』를 통한 연구와 접근은 유가 및 기타 제가들의 것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57) 심우섭. 관자 정치철학사상의 현대적 조명. 동양철학연구. 1999. 21. pp.240-242.

또한 후대에 완성되는 黃老학파의 사상적 흐름이 『黃帝四經』에서 『管子』 4編과 『呂氏春秋』를 거쳐 『黃帝內經』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sup>58)</sup>, 『管子』에 대한 연구는 당시 철학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이상으로 구체적인 학파들의 형성과 상호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

『管子』의 내용 중에서 소위 말하는 『管子』 4編은 『黃帝內經』을 포함한 황로학과 계열의 저술로 여겨지고 있다. 그 이유는 『管子』의 76편 중에서 이 「心術上」, 「心術下」, 「白心」, 「內業」 등의 4編이 주로 개인의 마음을 수양하는 내용 및 道, 德 그리고 精氣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sup>59)</sup>.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管子』 4編의 내용과 그 철학적 배경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管子』 4編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心의 개념에 대한 접근이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핵심적인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黃帝內經』의 저술도 그 배경에는 사회 발전과 통합의 과정 속에서 의학을 정립하고 인간의 몸과 마음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체계와 계통을 만들어 나가는 생리학적 관점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黃帝內經』에서 다루고 있는 陽氣의 운동변화와 臟腑論, 經絡論 등의 핵심 이론의 중심에는 心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을 때, 이미 정기의 개념을 중심으로 『黃帝內經』과 『管子』와의 관련성이 연구되어 있으나<sup>60)</sup> 본 논문에서는 주로 心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管子』 4編에서 다루고 있는 고요함[靜]과 비움[虛]의 수양론 및 정치학은 『黃帝內經』에서 중시하고 있는 恬憺虛無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sup>61)</sup>,

58) 김수중. 노자와 황로사상. 동양철학연구. 2006. 47. pp. 303-330.

59) 김광중, 지재동. 황제내경의 정기론 형성에 관한 황제사경의 영향. 동서의학. 2009. 34(3). pp.75-79.

60) 박석준, 최승훈. 관자 4편 등에 나타난 정기설 고찰. 동의병리학회지. 1993. 8. pp.204-205.

61) 『黃帝內經靈樞·上古天真論』에서 “夫上古聖人之教下也, 皆謂之虛邪賊風, 避之有時, 恬憺虛無, 眞氣從之, 精神內守, 病安從來.”이라 하여 마음의 조절과 비움을 질병 예방과 치료 및 장수의 가장 중요한 기본 바탕으로 삼았다.

이러한 마음이 상태가 어떻게 건강과 직결되며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질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곧 의학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管子』 4編에서는 이러한 심의 의미를 신묘한 神의 작용에까지 확대하여 설명하고 있다<sup>62)</sup>.

이는 『黃帝內經』 형성의 철학적 배경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임상 치료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수양의 방법론은 항상 추구해왔던 연구의 대상이었다. 인위적이고 목적 추구적인 삶이 아니라 고요함과 안정됨(靜) 속에서 恬憺虛無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의학적 관점에서 수양론의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管子』 4編의 정치적 의미의 心의 개념, 즉 통치자인 聖인의 입장에서의 無爲적 君主와, 개인적 수양의 의미인 心의 개념, 즉 바르고[正] 고요하면서[精] 비우는[虛] 노력 들은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생리적 관점의 心 개념에서, 君主와 九癘의 관계는 『黃帝內經靈樞·邪氣藏府病形』에서 “其精陽氣, 上走於目而爲睛.”이라 한 것처럼 陽氣 또는 精氣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정신적 측면에서도 『管子』 4編에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기 위하여 詩, 음악, 禮, 敬, 靜 등을 통하여 喜怒哀患을 조절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素問·學痛論』에 나오는 九氣의 조절 방법과 관련이 있다. 또한, 心은 자체로 가득차고 넘쳐서 저절로 생기고 저절로 이루는 반면에 그 心의 평정을 잃는 까닭에 근심, 즐거움, 기쁨, 노여움, 욕심, 이기심이 생긴다고 보았는데, 이는 『黃帝內經』에서부터 시작하여 후대에 발전되는 君火의 역할과 相火의 병리적 망동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이러한 철학과 의학의 상호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管子』, 특히 『管子』 4編의 내용은 당시 철학 및 의학의 모습을 재구성하고 핵심에 접근하는 중요한 연구 주제라 할 수 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하여 『管子』 전후의 역사적 배경과 철학적 맥락을 『黃帝內經』의 그것과 연결시켜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의철학 기초 연구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62) 김희정. 관자 4편의 구원론으로서 치신사상. 도교문화연구 제18집. 2003. pp.223-224.

## IV. 參考文獻

### <국내 단행본 및 중국고전>

1. 黎翔鳳. 管子校注. 中華書局.
2. 김필수, 고대혁, 장승구, 신창호. 管子. 서울. 소나무. 2006. p.16, p.446, p.506, p.508, pp.514-520, pp.523-524, pp.605-606, pp.612-614, p.645.
3. 야마다 게이치. 전상운 외 역. 중국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2. pp.92-94, pp.107-112, pp.116-118.
3. 유장림 지음. 조남호 외 역. 강설 황제내경. 서울. 청홍. 2009. pp.24-29, pp.228-229, pp.240-244.
4. 앤거스 그레이엄. 나성 역. 도의 논쟁자들 : 중국 고대 철학 논쟁. 서울. 새물결 출판사. 2003. pp. 182-191.
5. 김충열. 김충열 교수의 중국철학사 1 : 중국철학의 원류. 서울. 예문서원. 1994. pp.96-99, pp.240-285, pp.292-296.
6. F.W.모트. 김용현 역. 중국의 철학적 기초. 서울. 서광사. 1994. pp.157-164.
7. 김교빈 외. 동양철학 에세이. 서울. 동녘. 1993.
8. 周桂鈿. 문재곤 외 역. 강좌 중국철학. 서울. 예문서원. 1992. pp.141-142.

### <논문>

1. 박석준, 최승훈. 관자 4편 등에 나타난 정기설 고찰. 동의병리학회지. 1993. 8. pp.177-223.
2. 김희정. 관자 4편의 구원론으로서 치신사상. 도교문화연구 제18집. 2003. pp.214-215, 223-224.
3. 신정근. 전국시대 2단계 心 담론으로서의 관자 심학의 의의. 동양철학연구 제57집. 2009. pp.223-245.
4. 김예호. 직하황노도가의 정치철학 연구 - 관자 4편과 황제사편 토론의 사회적 전개과정 비교 고찰. 중국학보. 2003. 48. pp.597-622.
5. 김예호. 직하황노도가의 정치철학적 세계관 연구 - 管子4編의 토론 분석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2003. 33. pp.273-304.
6. 박동인. 管子4編과 갈관자의 기화우주론. 철학연구. 2009. 86. pp.33-59.

7. 심우섭. 관자 정치철학사상의 현대적 조명. 동양 철학연구. 1999. 21. pp.237-271.
8. 김광중, 지재동. 황제내경의 정기론 형성에 관한 황제사경의 영향. 동서의학. 2009. 34(3). pp.67-84.
9. 양칭. 관자의 도론체계 연구에 대한 종합적 서술. 동서사상연구소논문집. 2010. 8(2). pp.211-224.
10. 천인석. 유학사상과 한의학. 동서의학논문집. 2010. 21(2). pp.39-48.
11. 정우진. 감응과 한의학. 의철학연구. 2010. 9. pp.19-43.
12. 정우진. 상관적 사유의 비판적 고찰. 범한철학. 2010. 58. pp.1-25.
13. 김수중. 노자와 황로사상. 동양철학연구. 2006. 47. pp.303-330.
14. 김갑수. 황로학에 대한 오해와 진실. 시대와 철학. 1999. 10(1). pp.241-263.
15. 정영수. 맹자의 도덕적 자기수양 - 사유능력(思)을 중심으로. 범한철학회. 2008. 48. pp.29-49.
16. 김성지. 동중서의 양 중심사상으로의 전환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0. p.24, pp.26-30.
17. 백유상, 정우진. 유비추리를 통해 본 한의학 이론 구성의 과정.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6. 19(4). pp.202-211.